

시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복지서비스 현황분석

Analysis of museum welfare service for the blind

이지희¹, 유수정²

Lee JiHee¹, Yu SuJeong^{2*}

요약

우리나라의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그밖에 문화시설로 나뉜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과 장소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문화시설 중 전시공간인 박물관에 주목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자율적으로 박물관을 이동하고 체험하며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3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와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이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시각장애인, 박물관, 복지서비스, 문화시설, 편의시설

Abstract

Cultural facilities in Korea are divided into performance facilities, exhibition facilities, library facilities, local cultural welfare facilities, cultural extension facilities, and cultural facilities. Although there are various cultural facilities, the cultural welfare programs and 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e paper focuses on the museum, which is the exhibition space among the many cultural facilities in the whole country, and seeks ways for the visually impaired to visit and experience the museum and culturally benefit from it. The present state of welfare services is examined through program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Folk Museum, and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a plan to revitalize museums and art museums for the visually impaired is presented. If realistic and active institutions and considerations for disabled people are made, the quality of life of all people can be enhanced, and this can be a society where non-disabled and disabled peopl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Keyword: Visually impaired, museum, welfare service, cultural facility, convenience facilities

1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jihee.lee@kookmin.ac.kr

2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sujeong.yu@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November 20.2014), Review (December 12.2014), Accepted(December 31.2014)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그밖에 문화시설로 나뉜다. 먼저 공연시설은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이 있으며, 전시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등이 있다. 도서관은 도서관과 문고가 있고, 지역문화 복지시설은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 있으며, 문화보급·전수시설은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이 있다. 그밖에 위와 같은 문화시설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과 장소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문화시설 중 전시공간인 박물관에 주목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자율적으로 박물관을 이동하고 체험함으로써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자 한다.

2. 시각장애인과 박물관

1) 시각장애인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라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애의 유형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였다[1].

[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Table 1] A type of disability by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 애	외부신체의 장 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자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변장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기능장애, 음성기능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내부기관의 장 애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간장애	만성질환, 만성감염,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의 질환
		호흡기장애	만성 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기능의 손실로 오는 장애
		장루·요루장애	복벽에 소변 또는 대변을 배출시키는 인공항문을 지님
		간질장애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
정신적 장 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인은 2011년 12월말 기준 2,519,241명으로 2000년 12월 말 기준 958,000명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환경인 고용,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통계는 표 2와 같다[2].

그러나, 장애인들의 여가활용방법(2009년) 통계를 보면, TV시청 59.6%, 휴식 및 수면 42%, 가사일 31%, 사고관련 23.5%, PC관련 16.2%, 종교활동 14.2%, 여행 12.4%, 감상 및 관람 11.4%, 스포츠 10.3%, 자기계발 6.1% 순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예술행사의 관람률(2007년) 통계를 보면, 영화 13.3%, 미술전시회 2.6%, 대중가요 콘서트 2.6%, 연극 2.3%, 문학행사 1.9%, 전통예술 공연 1.9%, 클래식 음악회 0.9%, 무용 0.2% 순으로 나타난다[3].

[표 2] 장애 유형 통계
 [Table 2] statistics on types of disability

장애유형	2010	2011
총계	2,517,312	2,519,241
지 체	1,337,722	1,333,429
뇌병변	261,746	260,718
시각	249,259	251,258
청각	260,403	261,067
언어	17,207	17,463
지적	161,249	167,479
자폐	14,888	15,837
정신	95,821	94,739
신장	57,142	60,110
심장	12,864	9,542
호흡기	15,551	14,671
간	7,920	8,145
안면	2,696	2,715
장루 · 요루	13,072	13,098
간질	9,772	8,950

즉, 사회는 변화하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들이 즐기는 여가활동은 TV시청이나 영화관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마저도 시각이 매우 중요한 문화예술 행사인 만큼 시각 장애인들이 시청하거나 관람하기가 쉽지 않은 활동이다. 이에 시각 장애인 251,258명을 위하여 시각보다 오감을 자극하여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마련하여 문화적인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각 장애는 눈과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중심 시력 장애와 시신경 교차에서부터 뇌 영역까지의 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중추성 시각 장애를 말한다[4]. 대다수의 시각 장애인들은 잔존 시력이 남아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 공간과 형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여 실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특징은 시력의 손실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실명을 하여 시각장애인이 된 시각장애인들은 심리적 상실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완전한 신체의 상실, 일상생활기술의 상실, 자신감과 자존감 등의 상실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성적이며 체험이 가능한 문화 예술 공간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면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형성하고 자기 창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감성이 풍부해지고 결국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표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각장애 등급표

[Table 3]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Enforcement Rule」Blindness level table

시각장애등급	장애정도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해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고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시각장애인 심리적 특성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은 시각장애의 원인, 정도, 시기에 따라 그 영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같은 심리적 특성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먼저 실명의 원인이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선천적 시각장애인 중 유전에 의한 시각장애인들은 후천적 외상이나 질병에 의한 실명인 들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 유전이나 아니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점차 시각장애가 악화되어 눈을 제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갖는가 하면 망막변성인 경우에는 시야의 제한으로 보행 때 넘어질까 불안해하고 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이다. 시각장애인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장애의 시기이다. 슈레겔(Schlegel)에 의하면, 5세에서 7세 이전의 실명과 이후의 실명은 심리적 발달 요구에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전 맹인과 약시인의 심리적 문제에서도 전 맹인은 직접적 영향을 받으나 약시인은 사회 심리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전 맹인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약시인 들은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정안인의 역할을 하려

하기 때문에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 심리적 좌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아무리 재활훈련을 받아도 정상인에 비하면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은 남아 있다. 문서를 읽는 일, 물건을 만져보는 일, 보행, 사회 적응 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중에는 자기평가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도움 받기를 꺼리거나 도움 받는 것 자체를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여 숨기는 경우가 많다. 가식적이거나 겉보기 적응이 바로 그것이다. 또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잔존시력이 없으면서도 보행 시 흰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하거나 안내자보다도 앞서 걸으려고 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생활환경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생활이 고립되면 될수록 심해진다. 참된 적응이란, 실명이란 사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변 동료들의 이해와 협조는 좋은 습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5].

3. 시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복지서비스 현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르면 국립 박물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즉, 국립박물관은 다른 기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박물관이고 다른 기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3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립중앙박물관

(1) 손으로 읽는 그림책

이 프로그램은 6월 매주 목요일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과 비 시각장애인이 함께 손끝으로 읽을 수 있는 촉각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좀 더 애해 할 수 있도록 이론 강좌 및 점자 익히기, 시나리오 구성하기, 촉각 그림책 재료 익히기 등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촉각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공간 조성

2013년 4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상설전시관 1층 내 6개 장소에서 전시품 모형 촉각체험과 간편한 조작으로 전시품 해설 청취, 점자 해설 읽기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제한적인 전시공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상시 학습효과를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

[표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품 및 전시장소
[Table 4] Exhibits and exhibition place for the visually impaired

연번	전시품	장소
1	주먹도끼	101호 구석기실
2	돌칼, 요령식 동검	103호 청동기·고조선실
3	쇠투겁창	104호 부여·삼한실
4	오리모양 토기	104호 부여·삼한실
5	백제금동대향로	106호 백제실
6	고종황제 옥보, 명성황후 옥보	120호 조선 5실

2) 국립민속박물관

(1)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개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4년 5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민속박물관 이용안내 및 전시실 소개와 함께 박물관 새 소식을 전하여 우리민속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알기 쉽게 민속을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고자 마련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용 페이지를 이용할 때에는 음성변환 프로그램과 사운드카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야만 한다.

(2) 점자도 문자도 프로그램

14세 이상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2013년 5월 4일부터 6월29일까지 총 8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문자도를 제작한다.

[표 5]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품 및 전시장소
 [Table 5] Exhibits and exhibition place for the visually impaired

구분	일시		단계	교육내용	
1	5월 4일	매주 토요일 14:00- 17:00	도입	■ 이사 및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소개 ■ 학습 동기 유발 -마음을 여는 대화 나누기	
2	5월 11일		전개	■ 주제에 대한 설명 및 연계된 전시 관람	
3	5월 25일			1주	-라포형성
4	6월 1일			2주	-박물관 이해, 미술 기초 훈련
5	6월 8일			3주	-민속박물관 관람을 통해 나와 박물관의 스토리 만들기
6	6월 15일			4주	-문자도 민속 예술 표현 활동 -조별 작품 작업
7	6월 22일			5-6주	-개인별 문자도 작업
				7-8주	-전시를 위한 공동화 작업 -결과물 전시
8	6월 29일		정리	■ 학습정리 및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3)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현대미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촉각교재를 제작하여 관련 학교 및 기관(단체)에 이를 배포하고 있다.

[표 6] 교재
 [Table 6] Textbook

교재명	내용
마음으로 느끼는 미술관(1,2,3)	국립현대미술관 대표 소장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만나는 한국 근대미술	특별기획전: <한국근대미술 전> 선별작품
아름다운 만남-아동을 위한 촉각 그림책	<아름다운 만남: 기증작품특별전> 대표작품

4. 시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방안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촉각, 후각, 청각 등의 오감을 자극시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하여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다채롭게 구성해야 한다.

1) 시설 및 공간 확충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하여 행동반경이 짧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건물과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알맞은 시설이 완비되어야만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 환경의 개선은 현재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이는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 장애물 없는 환경인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는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 촉지도, 음성안내장치, 승강기 등 자그마한 실천으로 충분한 가능한 부분들이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시는 기본적으로 오감을 자극하여 문화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이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시공간에서는 촉각, 후각, 청각 등이 반응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제작한다[6].

시각 장애인은 주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공간을 인지하고 형태를 감지한다. 즉, 공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바닥, 벽, 기둥 등을 활용하여 촉각의 인지성을 부여한다. 우선 바닥재질의 이질적인 처리를 통해 전시공간을 서로 다른 공간으로의 명확하게 구분해준다. 벽의 재질 차별화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블록 및 핸드레일 체계를 도입하여 환경의 변화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시각 장애인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각 전시공간에 특정의 향을 적용시킨다. 후각 정보를 통해 전시공간마다 장소성 인지를 증대시킬 수 있고, 전시공간의 진입방식에 따라 향기의 진행흐름도 같이 이어준다면 또 다른 동선을 제공할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은 청각으로 방향을 감지하여 물체를 찾거나 공간의 크기를 파악하고, 방향 추적 및 위치 파악도 할 수 있다. 전시공간의 고정 음을 기준으로 방향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편, 해설음성, 자연음성, 인공음성 등을 사용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2) 홈페이지와 교육프로그램 강화

사이버 교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박물관유물과 전시 정보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시설 미비로 직접 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시 관람도 어려운 상황이다. 홈페이지를 음성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해당관의 유물에 대한 정보와 전시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함으로서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음성인식 장치를 대여하거나 전시물의 칩코드를 인식하여 전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각 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전문화 시켜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만들고 체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보는 전시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 주어야 한다. 탐갤러리와 시즈오카현립미술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조각 작품을 직접 만져보며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시각장애인도 비시각장애인이 보는 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듯 전시장 소장품을 이용한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이론 강좌를 홈페이지에 온라인화 하고 체험과 감상,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토론 수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3) 전문 인력 양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관련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각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각장애 성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7].

이러한 상황은 문화예술센터인 박물관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문지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인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각장애 전문 인력의 실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면 비장애인과 같이 오지 않는 경우 해설사 및 인턴 혹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5. 맺는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비장애인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이들이 사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통과 의례가 되었다.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지만 잘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안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종사자들의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와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이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1] M.S. Park, A Case Research on Museum and Art Gallery Education Programs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 [2] <http://stat.mw.go.kr/>
- [3] 2011 Disability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for Employment in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11).
- [4] <http://ko.wikipedia.org/>
- [5] www.angelbook.or.kr/
- [6] M. Y. Lee,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05)
- [7] Y.I. Kim, Blind Welfare, JipMoonDang (2010).